내 꿈에 대한 자신감 생겼어요

김해관동중, '자유학기제 진로 행사' 개최

경남 김해 관동중학교(교장 이광봉)는 지역사회의 물적, 인적 교육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2차 진로체험행사를 실시했다.

12월 6일에는 장유문화센터를 방문하여 연극 '가시고기'를 관람하였고 7일에는 디자이너, 드론, 모델, 스튜어디스, 항공기 조종사, 경찰관, 약사, 바리스타, 뮤지컬, 요리사 등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활동으로 이루어졌다.

8일에는 경남교육박람회를 방문해 여러 가지 진로체험을 실시했다.

관동중학교 학생들은 2차 진로체험행사를 통해 스스로 꿈과 끼를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고민·설계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기성찰과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1학년 양혜성 학생은 "생소한 직업체험을 통해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윤서 학생은 "막연히 알고 있던 직업에 대해 직접 배우고 체험해보니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관동중학교는 내년에도 학생들이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고 자신의 진정한 진로를 찾아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체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호기 기자 khk@

"청렴도 결과 겸허히 수용하겠다"

경남도교육청 "반성과 더불어 재도약 계기로 삼을 것"

경상남도교육청은 2016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에서 지난해보다도 1단계 하락한 12위를 차지한데 대해 "도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용하고 반성과 더불어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 청렴도 평가결과에 따르면, 경상남도교육청은 종합청렴도에서 전년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아 좋지 못한 결과를 낳은 것으로 분석하면서, 특히, 외부청렴도에서 운동부 운영에서의 낮은 점수가 청렴도 하락의 제일 큰 원인이며, 일선 몇몇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대회 출전 등의 불이익을 염려해 경기 전후 또는 명절에 관행적으로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내부청렴도는 전년보다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부패행위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취약하고, 내부 부패사건발생현황(4건)이 감점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여 상승폭을 끌어 올리지 못한 반면, 교수·기자·시민단체 및 학부모 등이 조사대상인 정책고객 평가에서는 전년도보다 크게 상승한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번 2016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를 도민의 의견으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반성과 더불어 재도약의 계기로 삼을 것이며, 특히, 청렴도가 제일 낮게 나타난 운동부의 고질적인 비리 근절을 위해 관행적인 금품·향응·편의 제공에 대해서는 수시 감찰과 더불어 적발시 일벌백계해 건전한 문화를 조성하는 등 "조만간 청렴도 향상 세부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전 교직원과 더불어 청렴한 교육문화 풍토 조성과 함께,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남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건전한 재정관리 힘쓰자"

경남도교육청, 사학기관 회계 담당자 연수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8일 경상남도교육연수원에서 2017.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계획 및 사학기관 예산편성 기본 방향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사학기관 법인·학교회계 담당자 및 행정실장, 교육지원청 사학담당자 등 350명을 대상으로 재정결함보조금의 지원 계획,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의 예·결산 지침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2017. 사학기관 예산편성 및 결산 주요 방향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의무사항을 강조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총액배분사업 확대 현황, 재정운영의 공개 항목 강화, 사립학교 맞춤형 예산 표준안, 법인회계 과목 변경,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방법 등이다.

특히 기존 법정부담금 납부율 30% 이하 학교의 경우 5% 구간별로 운영비를 차감하던 방식에서 70% 이하 납부 시 납부율에 따른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것으로 강화됐으며 이는 2016년도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시부터 적용되므로 학교에서는 정산 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재경 학교지원과장은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향상을 통해 책무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사학기관의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교육청, 결핵협회로부터 크리스마스 씰 증정 받아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6일 오전 10시 교육감실에서 대한결핵협회 울산경남지부(회장 박양동)로부터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받았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은 대한결핵협회의 결핵퇴치를 위한 노고를 치하하고 결핵관리 사업 수행을 위한 결핵퇴치기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대한결핵협회에서는 항결핵운동의 상징인 크리스마스 씰 판매모금을 통한 홍보, 계몽으로 국민에게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고 국가 결핵관리사업 재원 마련을 위하여 결핵예방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씰을 발행하여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16년도 크리스마스 씰은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하여 대한민국 독립운동가를 주제로 선정했으며 2017년 2월말까지 우체국 또는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모금이 실시된다.

아울러 대한결핵협회는 학생 결핵환자에게 행복나눔 지원비 1천4백만원을 지원하여 치료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완치할 수 있도록 지지 및 후원했다.

교육 본질 회복 위한 정책 안착 확인

경남교육정책협의회, 주요 정책 점검위해 학교탐방 실시

경남교육정책자문기구인 경남교육정책협의회(위원장 허정도)가 6일 경남교육 주요 정책 정착현황 점검을 위해 행복학교를 운영 중인 김해봉명중학교(교장 김진두)를 탐방했다. 그 동안 교육청의 주요 정책에 대해 협의회를 통한 정책자문에서 나아가 학교탐방을 통해 실제 교육정책이 어떻게 추진되는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경남교육정책협의회 위원들은 학교탐방을 통해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학생자치활동, 지역사회를 수업자료로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 학생동아리활동, 학교시설을 둘러보며 행복학교 정착현황을 점검했다.

21학급 650여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비교적 중규모의 봉명중학교는 2015년부터 행복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특성과 학교 주변의 여건을 교육과정에 반영한 다양한 체험학습과 프로젝트학습, 수업공개와 수업협의, 학생자치활동 등 교육과정 재구성과 학생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감과 비담임, 교무실무원을 중심으로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하여 담임교사의 공문 수발신, 교무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김진두 교장은 "행복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을 중심에 둔 학교교육과정 운영이다. 다양한 배움중심수업을 통해 학생의 학력도 향상된 것을 확인했다"며 행복학교의 배움중심수업이 학력을 떨어뜨린다는 일부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이 증명되었다고 말했다.

허정도 위원장은 "행복학교와 선생님들의 행정업무 경감 등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경남의 모든 학교가 행복학교가 되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지역 계약교실 운영 성과 보고회 개최

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 9일 학교 계약업무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계약교실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경상남도교육청 재정정보과장과 업무담당, 18개 교육지원청 계약업무 담당자와 계약교실 강사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계약교실'은 당초 창원과 진주지역에서 운영돼 현장호응도가 높고 타 지역 업무담당자의 수요가 증가해 올해 전 경남지역으로 확대, 운영한 것으로 학교현장의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교육대상자들의 강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보고회에서는 거제교육지원청을 포함한 18개 교육지원청이 지역계약교실 운영성과를 발표했다. 성과발표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124건의 강의를 통해 6,701명의 업무담당자가 참석했으며 학교근무자의 계약업무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 업무관계자는 "올해 지역 계약교실의 운영으로 학교 근무자의 계약업무 역량이 강화됐으며 청렴계약 문화가 확산되었다"면서 "2017년에도 계약업무의 현장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 확산 연수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9일 오전 10시 한국국제대학교 종합도서관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 225명을 대상으로 투명하고 청렴한 운동부 운영과 선수 폭력 예방과 지도자 소양교육을 위한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청렴도 및 부패방지를 위해 취약분야 집중관리를 통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방안도 모색했다. 이를 위해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각종비리와 사고를 사전에 방지해 청렴한 운동부 육성이 되도록 하고 선수 (성)폭력 예방, 청렴교육, 학생인권교육 연수를 실시했으며 선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연수를 이뤄졌다.

경남교육청 체육인성과 한지균 과장은 "앞으로 운동부 운영학교 관계자 및 지도자 연수기회를 통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부응해 우리 지도자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 운동부 운영의 청렴도 향상과 (성)폭력이 잔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선진형 학교운동부 문화 확산에 주력할 것이다"고 말했다.